

묵은 것이 좋다?

*날짜 : 9월 21일

*찬송 : 430장

*기도 : 구역원 중에서

*말씀 : 누가복음 5:38-39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1.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 금식은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결단의 행위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시작한 금식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잣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 된다.

▶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단지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님을, 결혼잔치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여기서 결혼잔치는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에, 그 메시아와 인간의 만남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잔치 자리와 같다는 거다. 따라서 감격스럽고 기쁜 잔칫날에 초대된 손님들에게 금식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럼 언제 금식해야 하는가? 구약에서 금식은 슬픔을 표현한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절망의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했다. 사람에게 보여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금식이나,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무지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문제였다.

▶ 무지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편협한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은 350년 묵은 씨간장이 아니다. 따라서 ‘묵은 것이 좋다’는 말을 내 생각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날마다 새 옷, 새 부대로 덧입혀져야 한다.

2. 서로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 금식기도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경험을 나눠보자.
- ▶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신앙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 ▶ 나의 무지로 인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수용해야 할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 ▶ 날마다 새 옷, 새 부대로 덧입혀져야 할 나의 묵은 생각은 무엇인가?

*찬송: 374장

*합심기도

1.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시작한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2.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3. 2025년 구역식구들이 서로 밀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예배가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4.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작성: 이성실)